

■ 광주 첫 배치 T-50 고등 훈련기 시뮬레이터 동승기



T-50 고등훈련기 시뮬레이터 체험을 위해 광주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지상교육대대를 찾은 지난 17일, 가상 비행에 앞서 교관인 류재원 대위(사진 우측)가 데모(demo)화면을 보며 훈련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위쪽기자 jw@kwangju.co.kr

머리 위 번개치고 기체 '흔들' 360도 회전·급선회 땀 '아찔'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골든이글'(Golden Eagle·검독수리) T-50이 조종석에 앉았다. 정면 눈 높이에 비행고도·속도·방향을 나타내는 계기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조종석 왼편에는 비행기를 가속시키는 스로틀(throttle)이, 오른편에는 위·아래, 좌·우로 비행 방향을 조정하는 스틱(stick)이 있었다.

기초에서 가상전투까지

스로틀을 앞으로 천천히 밀자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힘차게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계기판의 속도계가 최소 이륙 속도인 136노트(시속 252km·1knot=1.852km)에 다다르자 오른손으로 스틱을 잡아당겼다. 순간, 무게가 6천455kg에 달하는 육중한 비행기가 광공을 향해 가볍게 떠올랐다.

지난 17일 광주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도움으로 "T-50 고등 훈련기 시뮬레이터 훈련"을 체험했다. 시뮬레이터 훈련은 실제 비행기와 똑같은 장비를 갖춘 가상 비행기를 이용해 가장 기초적인 비행술부터 약천후 등 긴급 상황 대처요령이나 공중전 전략술을 익히도록 교육하는 것. 광주 공군기지의 시뮬레이터(180여원)

는 8m 높이의 동형 2층 구조물 안쪽에 T-50 조종석 부분과 대형 스크린을 갖추고 있다. 순수 국내기술로 생산한 T-50기 20여 대가 지난 2월 광주 공군기지에 첫 실전배치된 이후 학생 조종사 30여 명이 현재 시뮬레이터로 실제 훈련을 보강하고 있다.

"속력을 높이고 스틱을 이용해 오른쪽으로 선회하세요" 류재원(31·대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스틱을 앞으로 더 밀고, 스틱을 우측으로 당겼다. 갑자기 스크린에 안개가 됐다. 곧 머리 위로 번개가 내리쳤고 터블런스(turbulence·불안정 기류) 현상으로 기체가 흔들렸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약천후 상황을 해제하자 안개는 걷히고 산안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륙한 지 5분만이었다.

360도를 회전하는 수직기동을 위해 스틱을 몸쪽으로 힘있게 당

실제같은 30분 훈련

기자 비행기가 급선회하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조종사들이 가끔 하늘과 바다를 헛갈려 추락하는 '버티고'(Vertigo) 현상이다. 착륙은 이륙과 달리 녹록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스틱을 조절했지만



▲T-50 고등 훈련기=한국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 2인승 초음속 비행기. 길이 13.4m, 너비 9.45m, 높이 4.91m, 최대속도 마하 1.5, 이륙중량 1만3천454kg, 실용상승고도 1만4천630m이다. 대당 가격은 230여억원으로 2010년까지 5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비행기 한쪽 날개가 활주로를 벗어나 가까스로 멈췄다. 하지만 -3G(Gravity·중력)에서 +8G까지 견딜 수 있는 T-50의 기체는 거친 착륙을 무리 없이 견뎌냈다. 30여분간의 훈련이 끝난 후, 오왕목(41·중령) 지상교육 대대장은 "늘어난 교육생들로 인해 침체됐던 부대 인원이 활기를 띠고 있는 등 T-50은 지역민에게도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완도, 잇따른 전북 절도...해경 수사는 '미적'

어민들 "전남경찰이 수사해달라"

을 30여 건 발생

완도 해양경찰 관할 해상에서 전북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해경은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 절도사건을 전담하는 기획수사팀 팀원이 3명뿐이어서 수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다 못한 양식업자들은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완도해경 관내인 '한국전북협회' 안도·장흥·강진·해남지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진군 마량면에서 4천500미(2천만원 상당)의 전복이 사라지는 등 올해에만 30여 건의 크고 작은 전북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경

비정·순찰선 20척을 동원, 검거에 나서고 있으나 잠수 장비를 동원해 출몰을 앞둔 전북만을 골라 싸움이 하는 절도범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전북협회 완도지회" 김유신 회장은 "출하할 전복을 선별해 따로 보관해두면 누군가 귀신처럼 알고 가져가 버린다"며 "완도 관내에서만 20여 건이 발생했지만 '신고해도 해경이 인을 잡지 못해' 대부분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완도해경에 신고된 사건은 13건이며, 4건은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단(내사중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완도지역 전복 양식업자들은 지난 8일 완도경찰서를 방문한 전남지방경찰청 김갑성 청장에게 "피

해가 크니 해경 대신 전남경찰청이 전북 절도 수사를 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또 완도 노화읍 중리·소안리·신양진리 등 어촌계는 지난 5월부터 '해상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밤마다 5명씩 조를 이뤄 휴대용 서치 라이트(search light)를 들고 직접 양식장을 순찰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큰 건 사실이지만 올해에만 6건의 절도 사건을 해결했고 사안이 미비해 발표하지 않았다"며 "단서가 없어 4건은 내사중지했고, 3건은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기자 ejchung@

나원침 (7286) 김동주



순천 남성들에 퍼지는 '성매수 공포'

순천지역 대학생·회사원 등 남자들 사이에 '성매수 공포'가 퍼지고 있다. 경찰이 10대 가솔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120여 명을 추적,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순천경찰은 19일 아라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폭행·감금한 A(17·고2 중퇴)양을 구속하고, 감시역할을 한 B(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은행계좌를 확보해 성관계를 맺은 김모(38)씨 등 12명을 불

10대 가솔소녀와 성관계 회사원 등 120여명 추적

구속 입건하고, 성매수 남성으로 추정되는 110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가솔 후 순천시 조래동 일대 모델에 머물면서 친구인 C(16·고1 중퇴)양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도록 강요, 성매수자를 몰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C양이 성매매 대가로 100여 차례에 걸쳐 받은 화대 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양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알선만 했으며, 산배 B양을 시켜 C양이 도망갈 수 없도록 감시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이 가솔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식사 제공 등 최소한의 돈만 주고 1회당 5만~10만원의 화대를 갈취했다"며 "사이버 포루를 통해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끝까지 조사,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주·전남 폭염특보 나흘째 일사·열사병 사고 6건 발생

주말까지 무더위 계속

폭염특보가 나흘째 계속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일사·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6건이나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낮 최고 33도를 넘는 폭염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K 아파트 인근에서 아침운동을 가던 김모(62)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6시47분께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에서 밭일을 하던 김모(여·72)씨가 탈진,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무더위를 피하던 피서객들의 사

망·실종 사고도 이어졌다. 19일 오후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삼진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김모(45·경북 경산시)씨와 순천시 옥천동 임청대 공원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심모(10·순천 북초고 3년)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앞서 지난 18일엔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과 담양군 용면 가마골 '용소'에서 2명이 익사·실종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무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한낮에 바깥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행 기자 gilee@kwangju.co.kr

다름은 귀족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의료대 대학원 KCC광도, 시스텔정보 생산·시공

다방 여중업원 식발시켜 감금 상나팔 ○목포경찰은 19일 정신미약자 인 다방 여중업원을 4년4개월 동안 고공하면서 월급도 주지 않고 폭행·감금해온 김모(여·43·목포시 연산동)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3일 신안군의 한 섬에 있는 자신의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 K(여·37)씨가 돈이 없어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며 식발시켜 10일가량 감금한 혐의.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소개받은 곳에 지급한 선금 1천여만원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의 동의없이 770만원을 대출받아 갖지 않는 등 지금까지 6천여만원을 가로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목포=이성희기자 lsh@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특보: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7·9급 공무원 특강 일제면접 2700명채

여름방학 편입 대특강 개강 8월 1일 김영면입·PMS학원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술 화두로 떠오르는 마(간성)기술도 높여준다.

제1회 경찰청 공인자격 인증 시험일:10월 14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1회시험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다!